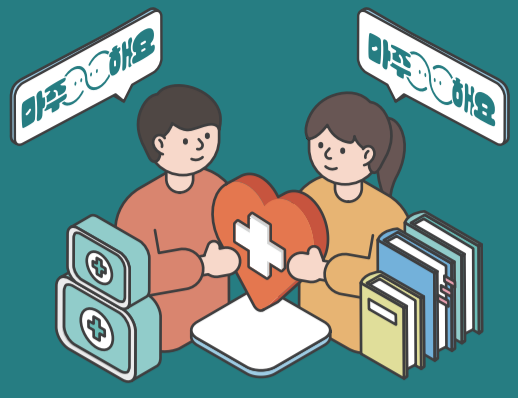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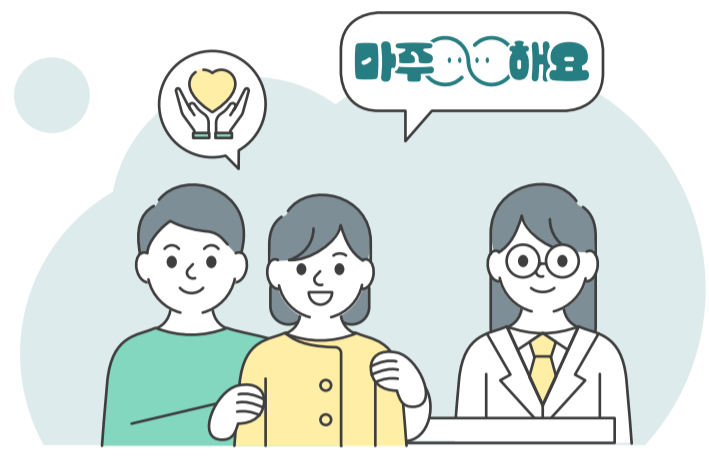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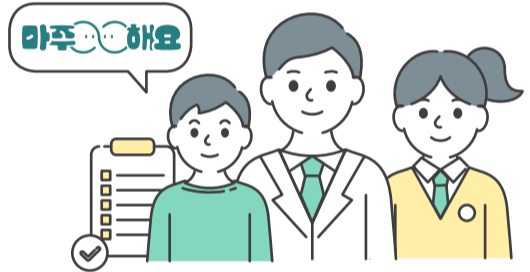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하며, 일상 속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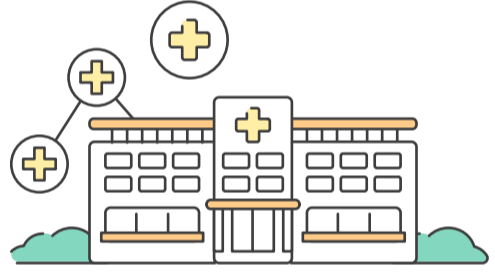


1 예방



AI(인공지능) 활용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심리상담바우처(8회) 지원
*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전액 면제

2 치료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급성기 집중치료실 병상 확대
(2025년) 391개 → (2030년) 2000개

3 회복



함께 회복과 자립을 돕는 동료지원 기반 전국 확대
동료지원센터
(2026년) 7개소 → (2030년) 17개소

4 중독치료



마약류 등 중독치료 기반을 강화하는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
(2026년) 9개소 → (2030년) 18개소

5 자살예방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중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2025년) 93개소 → (2026년) 98개소

1 [예방] 정신건강 문제, 더 일찍 마주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악화되기 전에 일상 속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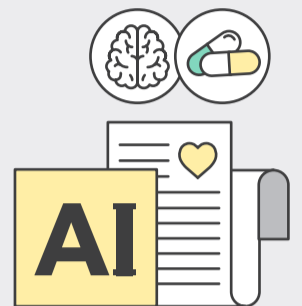
인식 개선

- 마주해요¹⁾ 캠페인을 통해 마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돌보는 문화 확산
- 웹툰, 유튜브 등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지원



AI 전환 대응

- AI 과의존 가이드라인 마련
- AI 기반 상담내용 분석과 온라인 모니터링²⁾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소 조기발견



모두가 누리는 심리상담 서비스

-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 재난피해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지원³⁾ (최대 연 8회 바우처 지원)
- 거동 불편자, 취약지 거주자 대상 방문상담·비대면상담 도입



소아·청소년·청년기 집중 지원

- 병역 판정검사 시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조기 치료·상담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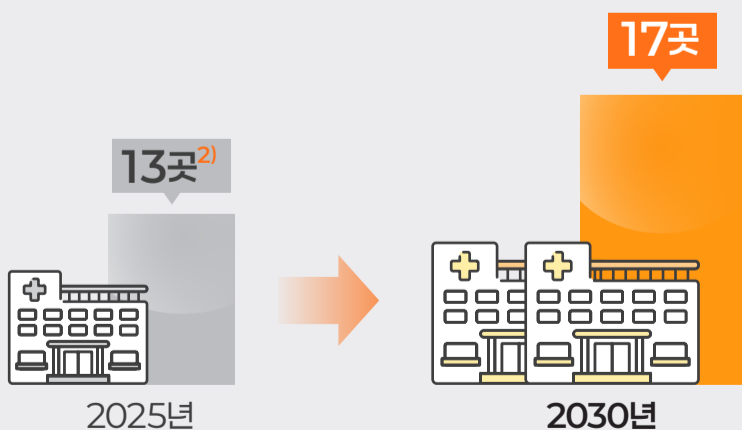
1) 마주해요: 마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정신건강을 함께 돌보자는 의미를 담은 국가 정신건강 인식개선 정신건강 캠페인 브랜드
 2)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상담 내용에 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요소를 탐지
 3) 대화 중심의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2 [치료] 안심하고, 제때 제대로 치료받습니다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건강 치료기반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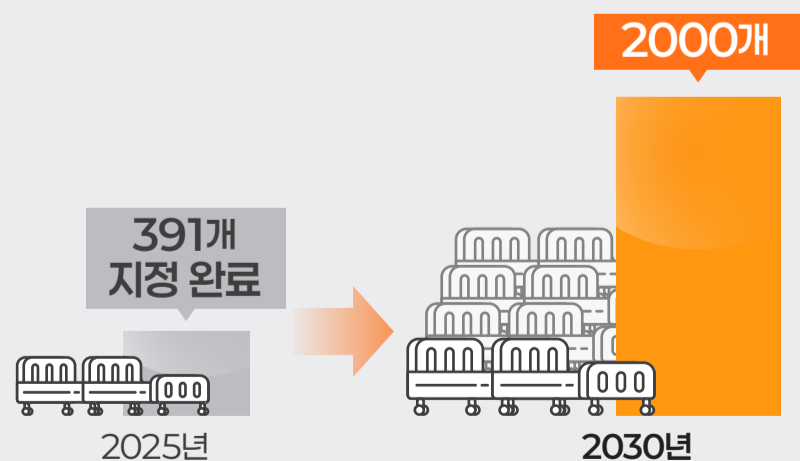
24시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¹⁾ 확충

-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전용 응급실을 2030년까지 17곳으로 확충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확충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강한 집중치료실 병상을 2030년까지 2000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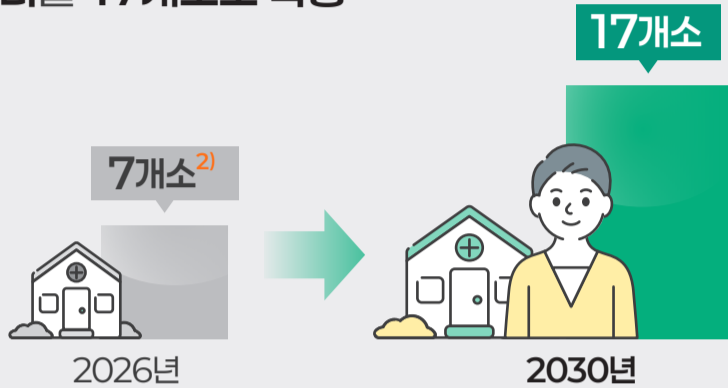
1)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과적 응급상황과 신체질환이 동시에 있는 환자에게 '24시간 정신과·응급 의학 협진과 단기 관찰입원 이후 치료 연계를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2022년~)
 2) 서울(2곳), 인천, 대전 울산, 경기(2곳), 강원, 전북, 경북(2곳), 경남, 제주(13개소, 27병상)

3 [회복] 함께 하는 회복, '나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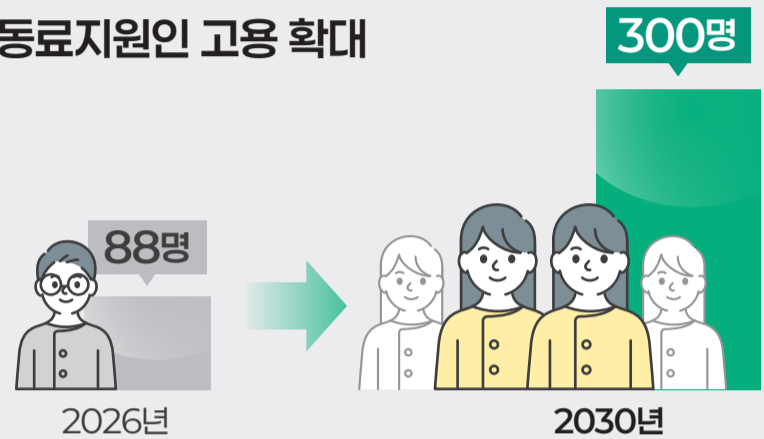
입원과 치료가 끝난 뒤 내가 살던 곳에서 '내 일'과 '내 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료지원 센터¹⁾ 확충 & 일자리 지원

- 회복 경험자가 다른 환자의 자립을 돕는 센터를 17개소로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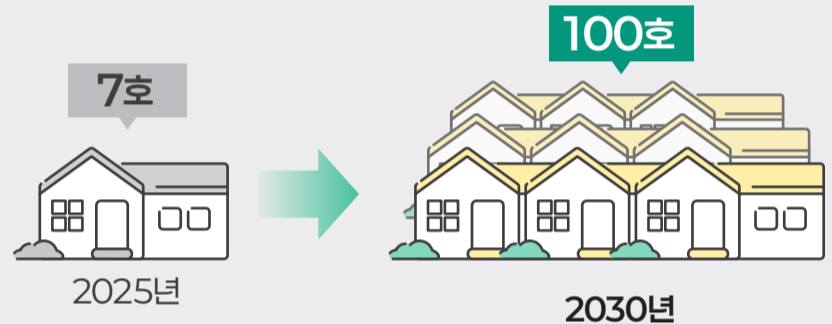


- 재활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인 고용 확대



통합돌봄³⁾ 및 주거·고용 강화

- 퇴원 후에도 의료·복지 통합돌봄 지원
- 정신질환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⁴⁾ 개발
- 자립준비주택, 독립지원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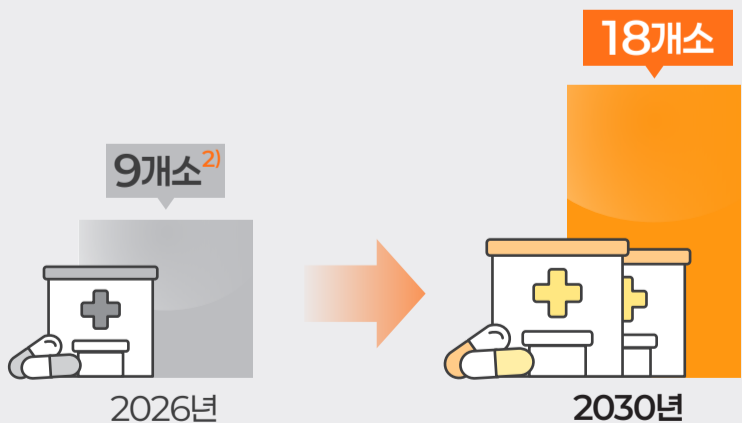
1) 동료지원 센터: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가 서로의 회복 경험을 나누고, 쉬고,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지원 공간
 2) [서울] 종일센터(송파동료지원센터), [서울] 관악동료지원센터, [경기] 경기우리도, [부산] 부산동료지원센터, [서울] 주간센터(회복의 공간 난다), [경기] 핑귌의 날갯짓, [광주]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통합돌봄: 퇴원 후에도 건강 상태와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함께 평가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료·요양·돌봄·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이어서 지원
 4) 치유농업사, 반려견 유치원 근무 및 수제간식 제조, 오피스카페 관리자, 펫 시터, 반려식물 전문가, 전통주 바리스타, 드론 방제사 등

4 [중독] 중독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독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전문적인 치료 기반을 확충합니다.

권역 치료보호기관¹⁾ 확대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전문 치료를 전담하는 거점 의료기관을 전국 18개소로 2배 확대



마약류 중독 치료 기반 강화

-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³⁾과 전문인력이 활용할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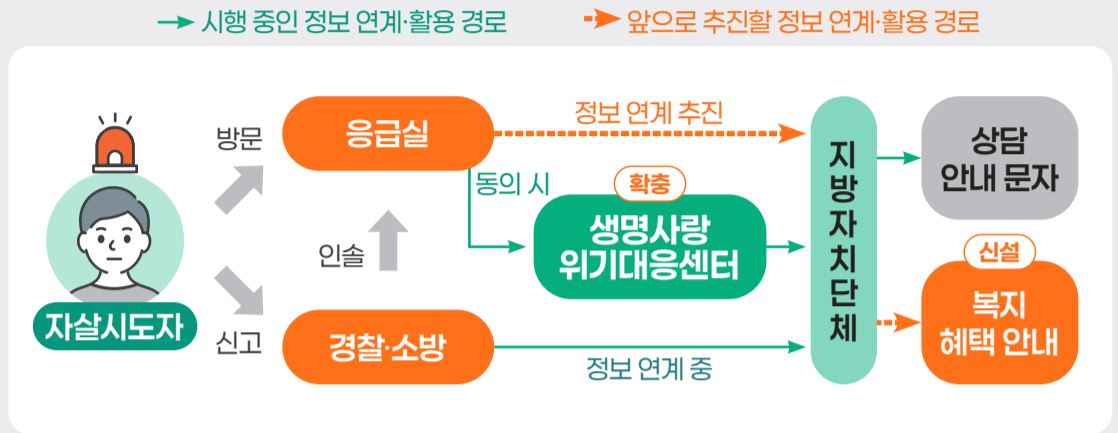
1) 권역 치료보호기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입원-외래 치료보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존 치료보호기관 중에서 권역별 중추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마약류 중독 치료기관 중 추가로 지정)
 2) 국립정신건강센터, 대동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참다남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연강삼병원
 3)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입원-외래 치료보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

㉔ [자살예방] 마음이 힘들 때, 함께 하겠습니다

자살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을 빠르게 찾아내어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합니다.

고위험군 신속 대응

- 경찰·소방·응급실 초기 대응 이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지원 연계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충 (2025년) 93개소 → (2026년) 98개소



근거 기반 자살예방 활동 강화

-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변화와 자살 요인을 살피는 심리부검을 청소년까지 확대(2027년)
- 인터넷·미디어의 자살유발정보를 AI기반으로 모니터링 실시(2027년)

